사장님 마음속 1등

(롬1:16~17)

16.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 로다.
17.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사장님 마음속 1등>이라는 제목의 하나님말씀 증거합니다.

1) 최근 어느 인기 걸 그룹의 한 여가수가 데뷔 4년 만에 솔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첫 솔로 앨범의 발매 직후 가진 한 인터뷰에서 "사장님이 나를 많이 믿어주고 응원해줘서 정말 감동했다"며 소속사 사장님의 든든한 지원 사격에 감사한 심경을 들려주었습니다.

데뷔 4년 만에 음원을 통해 첫 솔로 활동에 나선 어린 아가씨가 얼마나 마음에 부담이 컸겠습니까? 아마 생애 첫 솔로 활동에 대한 커다란 기대만큼이나 염려도 컸을 것이 분명합니다. 무대 위의 남다른 카리스마를 뿜어내던 가수래요. 그래서 이번 앨범에서도 자신의 쿨하고 멋진 캐릭터를 완벽하게 살려 음악으로 표현했답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최선을 다해서 음원을 준비했지만 발매된 후 어떤 반응들이 주어질지에 대해 많이 떨렸나 봐요. 하기야 그렇기도 하겠지요. 당연한 것 아닙니까? 이런 여가수에게 힘이 돼 주신 분이 바로 소속사의 사장님이었답니다. 특별히 사장님이 해 주신 다음과 같은 한 마디에 큰 용기를 얻게 되었나 봐요. 음원이 나오고 나서 말씀하셨답니다.

"내 마음속에선 네가 1위니깐 아무 신경 쓰지 말고, 곡을 사랑하는 만큼 무대도 즐겼으면 좋겠어." 너무 너무 기가 막힌 말씀이지요. 특히 이 부분 말입니다. "내 마음 속에선 네가 1위니깐 아무 신경 쓰지 말고 무대를 즐겨라! 그래요. 소속사 사장님이 당신의 마음속에선 음원차트 1위가 자신이라는 데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이 되었겠어요.

여러분은 누군가가 '내 마음 속에선 네가 1등이야' 라고 말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의 마음속에서 1등이기만 하면 다른 건 아무 신경 안 써도 되고 단지 내게 주어지는 상황을 즐기기만 하면 되는 그런 권위 있고 능력 있고 힘 있는 사람이 하나라도 옆에 있어요? 내 마음 속에선 네가 1등이야. 꼭 한 번 들어봤으면 좋겠지요. 그런데 누구한테 듣고 싶으세요? 사장님? 아내? 남편? 남친 이나 여친? 선생님? 목사님? 뭐 가능한 한 이 모든 사

람들로부터 들으며 살 수 있다면 정말 좋겠지요.

제가 여러분들이 이 모든 사람들에게 '내 마음속에선 당신이 1등입니다.'라는 말을 듣게 해 드릴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 모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전혀 신경 안 쓰고 삶을 즐거움 가운데 살 수 있는 길은 알고 있어요. 가르쳐드릴까요? 바로 오늘 본문 속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2) 17절에 말씀하십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답니다. 나타난다는 단어는 아포칼륍테타이라는 헬라어를 번역한 것인데 숨겨지고 감추어지고 보이지 않던 것이 드러난다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해 보자면 그 동안 숨겨지고 감추어지고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의 의가 복음 안에서 밝히 드러나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대체 하나님의 의가 뭡니까? 기독교인이라면 안 들어 본 사람이 없고 모르는 사람이 없는 단어이지요.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참으로 알고 있다고 여겨지는 사람도 흔치는 않은 그런 단어입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의에 대한 설명들을 읽다보면 설명하는 당사자도 자신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모르면서 하는 것 같을 때가 많아요. 참 의라는 이 단어 하나가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바로 알면 어렵지만도 않아요. 그리고 이 단어가 중요한 이유가 바로 로마서를 관통하고 있는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가에 대해 복잡하고 어려운 법적이고 교리적인 설명 다 뒤로 하고도 얼마든지 쉽게 한 마디로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내 마음 속에선 네가 1등이야"라고 말씀 하시는 순간이 하나님의 의가 '아포칼륍테타이' 하는 즉 '나타나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의 의란 그러므로 정의를 내리자면 '하나님께서 마음에 들어 하심' 입니다. 따라서 의란 이 맥락에선 법적이고 교리적인 용어 이전에 지극히 인격적인 단어입니다. 소속사 사장님이 어린 가수에게 따뜻한 마음으로 건네는 한 마디 확신에 찬 말처럼 말입니다.

"내 마음속에선 네가 1등이야"

사장님 대신에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이렇게 말씀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마음에 들어 하심이 바로 하나님의 의이지요. 하나님이 마음속에 갖고 계신 기준을 내가 충족시켰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기호에 내가 잘 들어맞았다는 것이며 하나님의 소원과 같은 마음을 내가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3) 그러면 하나님의 의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마음에 들어하심'으로 표현된 예가 있을까요?

바울이 1차 전도여행 당시 바나바와 함께 비시디아 안디옥에 갔을 때 유대인들을 상대로

행한 설교 중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행13장: 21절 이하에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사십 년간 주셨다가 22. 폐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라고 기록 되어있습니다. 22절 말씀을 공동번역에선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찾아냈으니 그는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요, 내 뜻을 다 이루어줄 사람이다.”

여기서 하나님의 의가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다윗이라는 사람 자체를 마음에 들어 하시는 의와 다윗이 행할 행위를 미리 마음에 들어 하시는 의입니다. 사울 왕을 폐하시고 다윗을 세우심은 다윗을 향해 “내 마음속에선 네가 1등이야”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다윗은 아버지 이새이 마음에 들지도 않았고 형들의 마음에 들지도 왕 사울의 마음에 들지도 않았습니다. 더구나 선지자 사무엘의 마음에도 들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은 이새의 아들들 중에 특히 엘리압을 마음에 들어 했습니다. 다윗은 오직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아무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왕이 되었고 메시야가 그 혈통을 통해서 이 세상에 오십니다.

또 한 좋은 예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된 후 일천번제를 드리며 하나님께 기도 할 때입니다. 백성을 판단을 지혜를 구하는 솔로몬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열왕기 상 3장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0.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11.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12.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네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네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네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13. 내가 또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네게 주노니 네 평생에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솔로몬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솔로문의 기도에 하나님의 의가 주어진 것입니다.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실 때 자신만의 기호와 기준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께 솔로몬의 기도의 내용이 1등 한 것입니다. 그런 뒤에 아무 신경 쓰지 않았는데 부귀와 영광까지도 함께 주어졌다는 말이지요.

4) 사장님 마음속에서 1등한 그 여가수는 음원이 발매 되고 얼마 되지 않아 실제로 차트에서 1위를 했다고 합니다. 연예계에서 잔뼈가 굵은 사장님의 감각이 정확히 들어맞았던 것이지요. 일개 기획사 사장님의 마음속에서 1등하는 것도 이런 정도의 실질적인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속에서 1등하고 싶지 않으세요. 이것이 바로 바울이 ‘하나님의 의’라는 단어에 로마서 전체를 헌정하고 있는 이유예요. 그리고 마르틴 루터가 목숨 걸고 종교개혁을 감행한 이유이기도 하고요. 아는 사람은 다 아는 겁니다. 괜히 엉뚱한 곳에 마음을 쏟으며 생

을 허비 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누구의 마음에 들어 보겠다고 그렇게들 밤잠 못자고 노심초사 하는 겁니까? 무엇을 이루어 보겠다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난리들이냐는 거예요. 딱 한 가지 하나님의 의만 얻으면 됩니다. 바울처럼 루터처럼 이 '하나님의 의' 얻는 일에 생을 올 인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 속에선 네가 1등이야" 하나님으로부터 이 한 마디 얻어내면 진짜 아무 신경 안 쓰고도 이 세상 너무너무 신나게 살 수 있어요. 그럼 대체 어찌해야 나 같은 사람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에게 "내 마음속에선 네가 1등이야" 라는 말씀을 들을 수 있을 까요? 그렇지요. 이런 질문이 당연히 나와야지요. 별나게 까다롭지 않은 그저 평범한 사람들일 뿐인 내 가족들에게도 나는 1등이 못되는 데, 내 회사에서 사장님께도 동료들에게도 1등이 못되는데 무슨 수로 우리 같은 존재들이 거룩하시고 전능하시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 1등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분의 기준 기호를 무슨 수로 우리가 충족 시켜드릴 수가 있습니까? 당연히 안 됩니다. 우리는 무슨 수를 써도 하나님 마음속에서 1등 못해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마음속에 1등이실 수 있으신 분은 딱 한 분뿐이세요. 바로 예수님 한 분뿐 이예요. 마태복음 3:17에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다윗이나 솔로몬에게 하셨던 것처럼 내 마음에 든다는 정도가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예수님 보시며 마음에 생기는 환희를 주체를 못하시는 겁니다. 이런 예수님의 1등자리를 누가 감히 넘보겠습니까?

5) 그런데 여기서 대반전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마음속에서 1등이신 단 한 분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로 연합 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1등이신 예수님과 하나가 되기만 하면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집니다. 예수님을 향해 하나님 아버지가 "내 마음속에선 네가 1등이야" 하실 때 그 말씀이 나를 향한 말씀도 되어버린다는 것 이예요. 이 사실을 알게 되고 이 길을 찾아낸 사도바울은 도저히 솟아나는 기쁨을 주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다 일어날 수가 있느냐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내 마음 속에서는 네가 1등이야 라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거지요. 그 다음에는 아무 신경 안 쓰고 살 수 있는 길 말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바로 십자가 위에서 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참으로 그것에 달려 죽으신 당사자에겐 인간으로서는 견디기 어려운 고통의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염치없게도 그 십자가를 우리는 복음 즉 기쁨의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참 염치없지요. 그러나 분명히 복음도 그런 지독할 정도로 기쁜 소리인 복음이 다신 없는 거지요. 직장이 없어요? 자식이 문제인가요? 건강이 너무 안 좋아요? 다 중요한 문제들이지요. 그러나 잠깐 뒤로 밀어 놓으세요. 우선 하나님께, 천지의 주인께 "내 마음속에선 네가 1등이야"라는 말씀부터 듣고 나서 다시 실업자의 자리, 문제아의 엄마자

리, 병자의 자리로 돌아와 보자고요. 아무 것도 신경이 안 쓰이게 될 걸요. 병이 낫는 것도 직장이 구해지는 것도 기적이지만 이런 문제들이 전혀 신경이 안 쓰이는 것이 더 큰 기적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 하신 것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고 말입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향해 네가 1등이야 하실 때 그 말씀이 바로 나를 향한 말씀이 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까지 하늘 아버지께 복종하신 예수님만이 하나님 아버지께 1등입니다. 그 곳에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 곳에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하나가 될 수 있게 되었어요.

6) 복음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이유는 그러나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단순히 예수님과 하나로 연합했기 때문에, 위치적으로 주님과 하나로 돼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마음에 들 수 있게 된다는 것뿐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함께 죽을 때 우리의 과거의 죄가 깨끗하게 사함을 받습니다. 그와 동시에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 속에선 하나님이 1등이에요.”라고 말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을 때 우리는 그 죽음의 의미가 이 세상에 대해서 죽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가족에 대해, 사랑하는 아들딸들에 대해, 내가 마음을 다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 죽는 겁니다. 심지어는 내 목숨에 대해서도 죽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 마음이 내 목숨도 사업도 가정도 그 어느 것에도 신경을 쓰지 않고 이제는 오직 하나님께만 신경을 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십자가에서 죽음과 동시에 내 마음에서는 하나님이 1등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사건이 십자가사건이고, 바로 그 십자가사건을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라는 얘깁니다.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복음인 십자가를 받아들이면서 모든 것에 대해 죽고, 하나님을 향해 내가 “하나님이 내 마음에서 1등이십니다.”라고 말할 때 하나님께서 주님과 함께 연합해 있는 나를 향해서 “네가 내 마음 속에서 1등이야!”라고 말씀해주시고, 그런 말씀이 들리고 나면 우리는 아무런 신경 쓰지 않고 이 세상을 살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하나님 마음속에서 내가 1등이기만 하면 됩니다. 내 인생에 다른 것 아무것도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그러기 위하여 주님 십자가에서 하나가 되게 하시고 주님과 하나가 됨으로써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만이 1등인 상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